

# 지방선거 조기과열 조짐... '게임의 룰' 살바싸움

## 안측, 설 전 창당비전 제시

'안신당 바람'속 여야 예비후보들 출마 선언 잇따라

여, 상향식 공천제·오픈 프라이머리 기선 제압  
야, 기초선거 공천폐지·투표시간 확대 등 맞서

6·4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 예비 후보자들의 공심 출마 선언이 잇따르는 등 정치권이 선거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창당을 추진중인 '신당'의 지지도가 제1야당인 민주당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지방선거 역시 '3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진 것도 한창 가열되는 분위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참여연령을 18세로 한 살 낮추고, 투표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기존보다 2시간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여야 모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각각의 이익을 관철하고자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워낙 견해차가 커서 조율이 쉽지 않다. 결국, 여야는 이달 말로 끝나는 정국특위의 활동 시한을 다음달까지 연장하는 게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19일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정국특위는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기득권 정치세력의 이익만을 대변하려 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한 약속을 자신들에게 국민 입장에서 존중할 이유가 없다"며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즉각 해산과 전면 재구성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정치개혁 문제에 관한 강도 높은

비난과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은 기성 정치권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새정치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반대하는 여당을 겨냥해서는 "새누리당은 공천폐지 무력화 시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특히 집권당이 된 새누리당의 입장 변복은 자기부정이고 정치의 훼손"이라고 공격했다. 이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헌신짝처럼 버리는 행위는 전형적인 사익추구 정치"라고 비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3월 입후보자 명단 구체화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6·4 지방선거 전 창당에 무게를 두고 막바지 준비 사항을 점검 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초선거 공천폐지에 관한 기자회견 뒤 지방선거 전 창당 여부에 대해 "설(1월31일) 전에 말하겠다"면서 "여러 가지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가능한 한 정리된 부분부터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 의원 측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치)는 지방선

기에 앞서 창당을 하는 쪽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조만간 최종 논의를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윤여준 새정치 의장은 "아직 위원장단 회의에서 공식 결정된 게 아니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지방선거 전 창당 목표는 노력해왔으니까"라면서 선거 전 창당에 내부 의견이 수렴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지방선거에서 전지역에 걸쳐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겠다고 선언한 만큼 초 재영입을 서둘러 늦어도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는 후보자 명단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새정치추진위원회 윤여준(왼쪽) 의장과 윤장현 공동위원장이 19일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광장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마친 뒤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시민 10명 중 6명 "호남은 위기상황"

정권창출 실패·박근혜 정부 소외 원인으로 꼽아

강기정 의원 '시민 여론조사' 호남살리기 7대 의제 제시도

광주 시민 10명 중 6명 가량은 '호남은 현재 위기 상황'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서는 정권 창출 실패에 따른 박근혜 정부의 차별과 소외를 꼽았으며, 민주당도 호남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민주당 강기정(광주 북구 갑)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우리 리서처에 의뢰해 광주지역 성인 남녀 11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호남살리기 광주시민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다.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8.3%가 현재 상황을 호남의 위기라고 답했다. 호남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38.2%가 정권 차원의 차별과 소외라고 응답했으며, 이어 승차독식의 권력구조와 지역주의(25.2%), 호남의 정치력 약화(19.4%), 위기 극복 동력 상실(9.7%)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호남의 정치적 입장을 잘 대변



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3.1%가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잘 대변해 왔다'고 응답한 사람은 13.9%에 불과했다. 호남 정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39.5%가 민주당 변화·혁신 부족이라고 꼽았다. 이어 호남의 정치지도자 부재(31.3%), 유권자의 문제의식 부족(19.8%) 순이었다. 호남의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에 대한 질문에도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6.3%에 달한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3.5%였다. '보통이다'는 25.2%에 불과했다. 한편, 강기정 의원은 19일 광주은행 대강당에서 '시민 1187인, 호남을 이야기하다. 상징에서 모델로 2014'라는 주제로 타운홀 미팅 방식의 토론회를 열고 호남살리기 7대 의제를 제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민주-안측 '호남민심잡기' 경쟁 가열

민주, 오늘 양동시장서 최고위 '민생투어'

안측, 1주일간 거리설명회 등 '안풍' 확산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통적 지지기반이자 텃밭인 호남을 지키려는 민주당과 호남에서 새롭게 바람을 일으키려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의 '호남 민심 구어'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은 '안철수 신당'의 지지세를 견제하고, 전통적인 지지층을 다시 불러모으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며, '안 신당' 측도 최근 주춤하고 있는 분위기를 반전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민주, 호남서 민생 투어=민주당은 지난 2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한 지 18일 만인 20일 다시 호남을 방문해 '텃밭 사수'에 힘을 모은다.

양동시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지역 기업체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에는 전주로 이동해 시장과 상가를 방문하는 강행군을 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민생탐방을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 개최라고 밝히고 있지만, 한 달 사이 두 번이나 호남을 방문한 것은 다분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세게 일고 있는 '안풍(安風·안철수 바람)'을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안측, 새 정치 분위기 확산 주력=민주당의 '호남 수성'에 맞서 안 의원 측은 시민 속으로 파고들며 '새정치 분위기' 확산을 통한 바람몰이에 나서고 있다.

안 의원 측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치)'의 윤장현 공동위원장은 지난 14일과 16일 광주 시내 곳곳에서 거리설명회를 가진 데 이어 19일에는 광주종합터미널에서 윤여준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당 설명회 및 국민추진위원 홍보 활동을 펼쳤다.

새정주는 최근 호남에서 지지율이 다소 빠지는 등 '안풍'이 주춤해지고 있다고 판단, 바람몰이에 주력하고 있다.

새정치 합류 후 첫 광주 방문에 나선 윤 의장은 19일 "이번 주 내이라도 새정치의 로드맵을 조속히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중"이라며 "과거엔 새정치 세력이 너무 완벽하게 준비를 한 뒤 정치를 하려 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내부 준비와 더불어 국민의 요구에도 부응하기 위해 창당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장은 야권연대에 대해 "국민은 넓은 정치의 형태로 본다"며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면 새 정치의 상징성이 날아간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과거 현실정치를 했더라도 낡은 세력 속에서 개혁을 하려고 고민하고 몸부림 친 인사라면 새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주는 오는 21일 제주의 이어 조만간 전북도 방문해 신당 설명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양혜령, 출판기념회

광주 동구청장 출마

광주 동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양혜령(52) 전 광주시의회원이 지난 18일 오후 광주 동구문화센터에서 자선예식에 '새는 바람 부는 날 짐을 짓는다'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양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동구청장 출마에 관한 일화, 동구의 미래전단을 비롯한 어린 시절과 그동안의 치과의사·정치인으로 걸어온 길을 책에 담았다. 양 의원은 인사말



에서 "책을 준비하는 3년여 동안 동구정치에 대해 많은 것을 뒤돌아보고 지역살림에 대한 연구를 했다"며 "호남 정치·경제 1번지 동구의 재도약이라는 큰 열망을 이루기 위해 주민 속으로 들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윤장현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허정 전남대학교 총동창회장, 양형일 전 국회의원의 축사에 이어 류재현 전남대학교 교수의 서평으로 이어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칙 제 131226-총-52297호

# 老안시려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 의원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 公告

### 利川徐氏 尙書公 大同譜 編纂

(이천서씨 상서공(감무공) 대동보 편찬)

壬子譜 (1972년 발간) 이후 42년 만에 대동보를 편찬 합니다

- 책으로 된 대동보는 이번이 마지막이오니 후손들은 빠짐없이 참여 바랍니다.
- 2011년말부터 공고(홍보)를 하였으며 2014년 3월 30일 수단 접수를 마감 합니다.
- 아직까지 접수 못 한 종친에게 널리 알려 편찬에 적극 참여토록 협조바랍니다.

兵部尙書公 編纂事務所

서울 TEL. 02-793-8252 FAX. 02-795-1831  
광주 TEL. 062-672-2002 FAX. 062-672-2001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 대출 리모델링 전문

대출한도 개인 500억원  
법인 1000억원  
(중앙회 플러스 연계대출 한도 포함)

비율 최고 80%  
취급대출 : 등산 및 각종 부동산 (종교시설 전문)

금 리: 최저 4.06%~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금고에 오시면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 MG 광주새마을금고

대표 본 점: 361-3515 양 동 지 점: 362-6164  
전화 각회지점: 268-6163 동암금회지점: 651-6167

광주 광역시 서구 현빈로 246번길 3